

요약

최근의 역사상 가장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은 후 1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지역이 전세계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회복 속도는 높은 실업률, 취약한 가계 재정 상태, 불건전한 은행 신용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고, 여전히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신흥 시장의 경제활동은 2009년과 2010년 1분기 동안 계속 신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경제회복의 패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국내 지향적 국가들(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과 호주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고, 수출 지향적 국가들은 급격한 V자형 경기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위기로부터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국가들까지도 생산량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것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 지역의 GDP 추세 성장은 지난 30년 간 선진국의 성장을 앞질렀으나, 아시아가 다른 지역들을 제치고 전세계의 경제회복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경기침체 시에는 수출이 아시아의 경제회복을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활기있는 국내 수요, 특히 가계 수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제회복 시에는 자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서서히 유입되었으나, 이번에는 이 지역으로 순자본이 급격히 유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했고, 또한 아시아의 회복 능력과 경제 구조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제 I장과 II장에서 설명했듯이, 아시아 지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당분간 계속 전세계의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선진국의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의 대부분 동안 전세계 및 국내의 재고순환이 아시아의 산업생산과 수출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은 축소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의 국내 수요는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경제활동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산 가치, 견실한 소비자의 신뢰, 고용 상태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인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 부문의 국내 수요는 가까운 장래에 성장을 지속할 충분한 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생산시설 가동률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경제회복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의 경제는 소비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해 민간 국내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2010년에 다시 두 자릿수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는 수입(특히 원자재와 자본재)을 증가시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강력한 수요를 감안하여 은행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부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수요가 계속 심각할 정도로 부진하여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관계 당국이 정책적인 개입을 연장 및 재개해야 합니다.

요약

아시아 지역은 경제 순환 과정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밝은 성장 전망과 선진국과의 이자율 격차로 인해 이 지역으로 추가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전망을 불식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일부 국가의 경기를 과열시키고 신용 및 자산 가격의 급상승과 관련된 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성장 추세가 급격히 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적절히 통제되고 있으나, 2009년 한 해 동안 여러 국가들의 경제에서 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해당 지역의 자산 및 주택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시경제와 금융제도를 주의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는 민간 국내 수요를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고의 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선진국에 대한 아시아의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이고,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수요는 금융 위기 전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계의 수요가 위축될 것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중국은 소비재의 소비 및 수입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요 감소를 단지 일부분만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결과, 아시아에서는 상실된 선진국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아시아 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2차적인 국내 “성장 엔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민간 국내 수요는 주로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창출해야 합니다.

제 III 장에서는 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국내 수요가 균형을 회복하려면 다수의 지역 경제가 광범위한 분야를 상호 교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비를 증가시키고,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채택한 종합적인 조치들(재정적 조치, 제품, 노동력,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 환율의 유연성 증대 등)은 전세계적인 수요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